

1900~1910년의 인문학 양상과 발전(2)



글_ 성일권정치학 박사

대중의 시대에 접어든 20세기 전후해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대두하면서 유럽에서는 사회학, 미국에서는 실용주의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인류 문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인류학이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프랑스 사회학의 등장

아우구스트 콩트(Auguste Comte)가 새로운 사회현상에 주목해 1948년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으나 사회학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무렵이었다. 20세기 들어 가브리엘 타드(Gabriel Tarde, 1843-1904), 르네 웜스(Rene Worms, 1867-1926), 에밀 뒤르카임(Emile Durkheim, 1858-1917) 등 3명의 지식인이 사회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들 중 가장 핵심적인 타드는 저서 《여론과 군중》(1901) 등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학파를 만들지 않은 외로운 학자였다.

웜스 역시 19세기말 사회학 분야에서 혜성 같은 존재였으나 오늘날 그의 이름은 완전히 잊혀졌다. 그는 1893년 국제사회학회지를 창간한데 이어 그 이듬해에는 국제사회학 연구소를 설립해 연례학술행사를 개최하였다. 웜스는 특히 1896년 《조직과 사회》를 출간해 당시 사회학 글쓰기의 전형(典型)을 선보였다.

웜스의 뒤를 이어 등장한 뒤르카임은 사회학에 대해 자연과학의 실험과 같이 비교적인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회과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1895년 저서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에서 사회학의 학문 방식을 정의했으며, 1897년 《자살》에서 이를 자살의 문제에 적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회학은 연구의 목적과 대상, 방식을 갖게 된 것이다. 사회학을 다른 학문과 관련해 잠깐 살펴보자. 특히 제도적인 부문에서 사회학의 발전은 어떠한가? 조직 활동에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뒤르카임은 자신의 연구계획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그는 1898년 젊은 학자들과 함께 '사회학의 해' (L'Annee sociologique)라는 학술지를 창간한다. 여기에 그의 조카인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를 비롯, 모리스 할브와시(Maurice Halbwachs), 셀레스탱 부글레(Celestin Bouglé), 프랑스와 시미앙(Francois Simiand), 폴 포코네(Paul Fauconnet) 등이 가담했다.

이로써 프랑스 지식인사회에 사회학이 주요 학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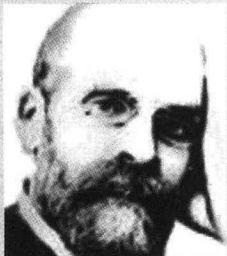
독일 사회학의 출현

프랑스와는 달리, 20세기 초반 해도 독일에선 사회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막스 베버(Max Weber), 베르너 쾰바르트(Werner Sombart)와 조지프 슈페터(Joseph Schumpeter)는 1903년 독일에서 최초의 사회과학 잡지라 할 《사회과학과 사회정책잡지》를 창간했다. 하지만 사회학이라는 용어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그 무렵, 하이델베르크대학의 경제학교수로서 지식인 사회에서 잘 알려진 베버가 경



막스 베버



에밀 뒤르카임



존 듀이

●이 글을 쓴 성일권은

파리 3대 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석사, 파리 8대 학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와 옮긴 책으로는 《오리엔탈리즘의 새로운 신화들》《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진보와 그 적들》《자본주의의 새로운 신화들》 등이 있다.

제사와 토지 소유문제, 주식 등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저술을 펴냈다.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그는 사회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과로의 누적과 가정불화로 인해 1897년 대학 교수직을 그만둔다.

베버는 1900년부터 활동을 재개해 사회과학 방법론과 인식론적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이었다. 신교도출신 기업가 가족에서 태어난 베버는 경제적인 역동성과 종교적인 원리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연관성들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그는 1905년 출간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자신의 궁금증을 풀어내 이제 막 태동한 사회학적 공동체에서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1904년 이래 베버와 함께 《사회과학 및 사회정책 잡지》를 펴낸 쾰른의 쾰른(1863-1941)은 윤리적 사회정책학과에 대하여 사회정책의 과학성의 확립에 힘썼다. 그는 물이론적인 역사학과를 비판하고, 이론과 역사의 종합을 시도하여 '경제체제'의 개념을 확립하는 등, 경제사회의 전체적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 《근대자본주의》(1927)이다. 그러나 베버와는 달리, 쾰른은 프로테스탄티즘의 역할을 중요시하지 않은 채 부르주와지의 사회적 배경에 관심을 가졌다.

베버는 1910년 게오르크 지멜(Georg Simmel), 페르디난드 토니(Ferdinand Tonnies)와 몇몇 다른 독일 사회학 학자들과 함께 독일 사회학회를 탄생시킨다.

종교의 퇴조 속에 인간 소외, 과학과 기술의 발전, 행정과 경영의 등장, 노동문제의 대두 등은 20세기 전반기 독일 사회학자와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미국 실용주의의 탄생

그러나 미국에서는 인간 사회의 본질적 문제에 천착하려는 유럽의 지적 분위기와는 달리, 다윈의 진화론적 시각을 반영한 실용주의(pragmatism)이 태동하였다.

“아이디어는 진짜 또는 가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유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1907년 펴낸 소책자 '실용주의'(Pragmatism)에서 이 같이 주장하였다. 다윈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하드대학 교수출신의 그는 도덕,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실용주의적 가치의 우위를 설파하였다. 이어 등장한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처음에 헤겔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나, 차차 제임스의 실용주의에 끌려, 이것을 발전시킴

으로써 실용주의 또는 인스트루멘탈리즘(도구주의)의 입장을 확립하였다. 그의 《논리학적 이론의 연구》(1903)에 의하면, 모든 사고는 혼탁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명확한 상황으로 개조하는 노력, 다시 말하면 '탐구'인 것이다. 특히 교육과 관련해, 그는 교육이란 경험의 끊임없는 개조이며, 미숙한 경험을 지적인 기술과 습관을 갖춘 경험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거나, 반대로 학생들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면 불충분하므로 여러 가지 경험에 참여시킴으로써 창조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계획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을 위하여 학교는 현실사회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사회개조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이상사회로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용주의는 미국 철학계 최초의 주류 사상이 되었지만, 유럽에서는 애써 무시되었다. 버트드 러셀(Bertrand Russel)은 실용주의를 '장사꾼의 철학'이라고 폄하했다.

인류학 관점의 변화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제국주의의 영향 탓에 서구와 비서구 문명을 진화론적 차이로 설명하는 구분짓기가 유행이었다. 인류학에 있어 루이스 모건(Lewis Morgan, 1818-1881)은 이미 1877년 저서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La Societe archaïque)에서 '진화론'을 적용해 사회발전 단계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같은 관점은 점차 힘을 잃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이민한 독일 출신 인류학자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는 역사주의적인 입장을 중시하면서 문화를 통합적 전체로서 고찰하였으며, 문화영역 · 주변영역 · 부족유형(部族類型) 등의 개념을 안출하여 뒷날의 기능주의적 연구를 위한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그는 제임스 프레이저(James G. Frazer)가 주창한 진화주의적인 문화발전론을 경멸하였다. 인류학계의 주요 인물이 된 보아스는 인류학계의 한 세대를 구성한다. 로버트 로위에(Robert Lowie), 알프레드 크뢰버(Alfred Kroeber), 에드워드 사피르(Edward Sapir), 랄프 린튼(Ralf Linton)등이 그들이다. 인류학은 보아스와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됐다. 문화의 연구가 인종의 연구에 대해 우위를 갖게 된 것이다. ❖